

국내식품 보호 육성 고려해야

수 입 식 품

노 완 섭 /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1. 서 론

지난 몇년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으로 국제무역 수지에 있어서 흑자규모가 해마다 늘어남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압력때문에 우리 정부도 어쩔수 없이 지난 '81년부터 수입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수입개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89년 7월 공산품을 포함하여 84가지 품목에 대하여 수입 자유화를 실시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입 자율화 비율이 95%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수입 자율화 비율도 76%가 되었다.

이렇게 수입 자율화 비율이 늘어간다면 머지않아 100% 전면 개방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과거처럼 가만히 앉아서 정부로 하여금 수입개방을 막아달라는 안이한 자세로는 국내 식품산업의 활로 개척이 어려울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 내년이면 거의 100% 수입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농축수산물에 집중될 것이 확실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노사분규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데다 원화절상·생산성저하·물가상승·주택문제 등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여 제조업체들은 시설투자나 신제품 개발보다는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수입에만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소위 대기업에 속하는 종합상사들은 수출부진에 따른 영업 실적을 만회하기 위하여 완제품의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공산권과의 무역을 확대하여 이에 따른 구상무역이 늘어나게 되자 교역 상대국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하므로써 국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구상무역의 경우 수입하는 물건들이 내국인들에게 쉽게 팔리고 현금회수가 쉽고 빠른 소비재들이 대부분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국산보다 값이 싼 원자재나 부자재는 일부이고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시장에서 덤핑으로 판매하는 행위까지 생기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2.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현황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을 보면 '89년 9월말 현재 약 30억불

에 달하고 있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36.5%나 증가하여 총수입 증가율 18.7%의 2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산물을 제외한 농축산물의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작년 1월부터 9월말 까지 약 28억불을 수입하여 '88년 수입실적 과 맞먹고 있다.

표 1. 농산물 수입 실적 (단위 : 백만불)

년도	1988	1989 1월~9월	'89/'88 (%)
곡 류	1,443	1,327	92.0
농 축 산 물	181	305	168.5
근 채 류	33	39	118.2
과 실 류	32	42	131.3
과 채 가 공 품	41	64	156.1
다 류 및 향 신 료	82	61	74.4
유 지 작 물	61	57	93.4
동 식 물 유 지	182	135	74.2
당 류	292	267	91.4
음 료 및 주 류	43	44	102.3
식 물 성 유 지	147	173	117.7
연 초	67	98	144.1
기 타	179	166	92.7
합 계	2,783	1,810	99.8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월보

수입품목별로 다류와 향신료, 동식물성 유지만이 전년도 대비 74%에 머물렀을 뿐, 그의 모든 품목은 전년도 수입실적을 초과할 것이다. 특히 축산물·과실·채소 및 이들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난 '88년도 수입실적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살아 있는 동물·육류·낙농제품을 포함한 축산물은 3억 5백만불을 수입하여 '88년 수입실적 1억 8천만불과 비교할 때 168.5%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국산 쇠고기의 공급부족과 미국등으로 부터의 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88년 2만 2천톤이던 쇠고기 수입이 6만1천톤으로 약 3배나 늘어났다.

과실류의 수입은 4천2백불로 '88년의 3천 2백불 대비 131.3%로 신장하였다. 과실의 수입은 국산 사과와 배의 구상무역 확대로 수입이 늘어난 바나나 2만8백톤에 1만5천불을 비롯하여, 알라(Alar)파동 이후 수입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워낙 수입량이 많았던 자몽 1만9백톤에 9천4백만불, 그리고 아몬드(amonde) 1천9백톤에 6천2백만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바나나와 자몽의 수입은 '88년 대비 각각 168.8%와 84.8%로 늘어났다.

작년 7월 1일자로 수입이 개방된 농산물과 가공품은 표2와 같다.

표 2. 1988년 7월 1일 수입개방한 품목

구 분	품 목
과 실 류 (10)	대추야자 과아버, 망고, 망고스틴 파과야, 슬로우, 나무딸기, 신선 초본류 딸기, 커런트와 구즈베리 크린베리
축 산 물 (7)	산양의 고기, 기타 면양의 고기, 말·당나귀·노새와 비새고기, 소의 냉동간장, 돼지의 냉동간장, 기타 식용설육·오리고기(절단하지 않은것)
가 공 식 품 (26)	기타 육류조제품, 기타 육류통조림, 일시 저장한 초본류 딸기, 낙화생유, 잇꽃유, 팜하트, 바바수유, 잼·과실제리 및 마아말레이드, 호호바유와 그 분획물, 균질화된 조제품, 피넛버터, 커피크리머, 균질화된 조제품, 기타과실의 잼·제리 및 마아말레이드, 딸기통조림 기타 과실로 만든 푸레·페이스트, 시타 과일주스, 과일혼합주스, 식물성 단백질계 물질, 배(기타방법 조제품)
곡 물 (3)	이집트콩, 렌즈콩, 잠두
사 료 (5)	수지박, 들깨유박, 기타 식물성유박, 양돈용 배합사료, 기타 배합사료(대용유 제외)
임 산 물 (1)	피스타치오
기 타 (4)	잇꽃씨, 시어넛, 살구·복숭아·자두의 핵, 페니
계	56개 품목

위 표에서 수산물 26가지는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수입이 전면 개방된 품목수는 농축임산물 56가지와 수산물 26가지를 합하여 82가지 품목이 작년 7월 1일부로 수입이 개방된 셈이다.

이 중에서 85년 6월말까지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이 41가지인데 소와 돼지의 간장을 비롯하여 대추야자·망고·파파야 등 37가지는 '88년 7월 이후에도 수입실적이 전혀 없으나 견과류인 피스타치오, 살구, 자두씨, 과일혼합주스 등은 수입개방후 계속 늘어가고 있다.

표 3. 1989년 7월1일 수입개방후 수입실적 (단위: 천만불)

연도	1988년	1989년 1월~9월	'89/'88 (%)
정제 잇꽃유	12	53	441.7
호호바유	275	442	160.7
과실균질가공품	144	353	245.1
과실잼 및 젤리	327	333	101.8
과실퓨레및페이스트	136	236	173.5
땅콩버터	6	63	1,050.0
기타과일주스	44	366	9,150.0
식물성단백질	1,469	1,115	75.9
커피크리머	190	803	422.6
기타	181	372	205.5
합계	2,784	4,136	148.5

이에 반하여 개방이전에 수입실적이 있던 15가지 품목중에서 조제낙화생유 등 3개 품목은 수입이 개방된 후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정제 낙화생유·과일을 으개어 만든 과일균질화 가공품·잼·젤리·커피크리머 등 12가지 품목은 개방전 후 수입실적이 비슷하다.

'89년 9월말 현재 56개 품목의 수입실적은 약414만불에 이르고 있다.

즉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이후 수입이 급증한 품목은 과실잼, 젤리, 과실퓨레, 페이스트, 땅콩버터, 기타 과일주스, 커피

크리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국내 식품 수입업계의 현황

소득의 증대와 생활의 변화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의 규모가 '70년의 9천9백6십억원에서 '84년 5조8천5백5십억원으로 연평균 13.5%의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약 8조3천2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국내의 생산증가 때문이며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지난 '70년 수입식품은 650억원이었고 '84년에는 1,110억원으로 증가 연평균 신장율이 3.9%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 개방정도가 81%에 이르게 될 금년에는 약 11.3%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게될 전망이다.

가공식품의 수입증가율과 국산 가공식품의 생산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89년이후 수입식품의 증가율은 15%정도로 신장하여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적 팽창과 함께 외국의 식품생산업체들이 가세한다면 기반이 약한 우리의 식품산업체는 국내 소비자들의 외제 선호사상이 짙은 약점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내수시장을 겨냥한 공략이 날로 심화되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경우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한 고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계속적인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 '87년과 '88년의 수입식품 현황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 4. 식품 수입 현황 (단위 : 천불)

품 목	연 도		
	'87	'88	'89(9월말)
04류 낙농제품등	8,654	15,176	12,816
09류 코피·차류	75,253	81,556	55,147
15류 유지류	131,307	243,417	119,982
16류 식육·어육제품	2,557	6,640	5,709
17류 원당등	183,272	291,990	235,723
18류 코코아·초콜렛류	17,521	25,335	19,587
19류 과자류(기타조제식료품)	3,091	5,976	9,154
20류 채소과실	22,415	41,454	55,924
21류 기타조제품	3,964	22,631	24,226
22류 음료·알콜식초	21,224	26,502	37,791
합 계	496,258	760,679	576,059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년보

'89년 9월말 현재 전체 수입식품은 5억8천만불 정도인데 그중 40.9%를 차지하는 2억4천만불 정도가 원당(原糖)수입량이고 20%를 차지하는 약2억불이 유지(油脂)수입이고 보면 순수하게 수입된 식품은 약40% 정도이다. 이렇게 식품제조용 원료의 경우 최근들어 완제품의 수입이 늘어감에 따라 양적으로는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7년 7천5백만불, '88년 8천2백만불 정도 수입하던 커피와 다류의 수입이 '89년에는 다소 줄어들어 9월말 현재 5천5백만불 정도이다. 이는 지난 '87년부터 서서히 수입이 늘어났던 테이스트 초이스 커피가 네슬레와 두산의 합작으로 세워진 한국네슬레에서 '89년부터 직접 생산했기 때문이며, 수입품목도 인스턴트커피와 레귤러커피로 바뀌고 있다.

코코아 초콜렛의 경우 지난 '88년 2천5백만불로 전년도 1천7백만불 대비 144%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어 연증가율 50%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내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는 수

입식품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 수입업체들은 해태제과, 삼양식품, 네슬레식품 등의 식품업체와 수입전문업체인 제일훼밀리, 세한유통, 유코머천트, 세진서프라이 등 30여개 업체들이 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이 완제품의 수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은 수입에 직접 참여할 경우 물량확보나 가격면에서 직접적인 컨트롤이 가능하여 내수시장에서 독점이 가능하고 자사제품에 로얄티의 지불 없이 간접적인 기술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고가전략으로 특수층을 겨냥한 소비층의 확대와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위해 시설투자에 앞서 시장조사를 하게 된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일부 종합상사들이 수산물을 수입할 때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입에 나서고 있어 농어민의 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특히 산업피해 구제신청까지 생겼던 새우젓의 경우에는 종합상사들이 대량수입에 나선다고 하여 계열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비화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와 종합상사들이 수출부진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량수입으로 재미를 보았던 자몽·옥수수 등 식품원료들이 안전성 문제로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번에는 완제품의 수입에 전력투구하여 실적을 만회하고 있다.

식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한번 먹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오랫동안 인체에 미치기 때문에 수입식품에 관한한 국민보건적 차원에서의 연구검토와 농어민의 보호적 차원의 대책까지 이루어져야만 한다.

수입식품의 품목별 현황을 살펴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소비의 고급화 추세로 예년에 비하여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는 레몬·캐러멜·가공식품·맥주·위스키·과일카테일 등이다.

표 5. 수입식품의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천불,%)

품 목	1988		89.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채소류	3,670	△91.8	2,285	22.1
과실류				
· 레몬	2,131	57.6	1,033	25.9
· 그레이프루우트	3,512	274.4	7,017	569.9
육류				
· 소고기	42,828	*	103,579	141.8
과자류				
· 캐러멜	575	2,029.6	387	454.1
주류	42,747	85.8	22,854	43.6
· 맥주	891	182.9	296	56.6
· 위스키	14,554	60.1	10,277	97.4
· 과실카테일	2,521	789.3	2,174	454.7

수입 주류(酒類)의 경우 맥주의 수입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다. 수입이 개방되자 슈리츠, 하이네켄·밀러 등이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 기존 생산업체인 동양맥주와 조선맥주의 2대메이커의 자금력이나 판매조직 그리고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워낙 강하여 수입맥주가 들어설 틈을 쉽사리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두 회사가 외국의 유명브랜드와 기술제휴로 프리미엄 맥주인 칼스버그·버드와이저·뢰벤브로이 등을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수입하고 있는 것은 진로의 밀러 뿐이다. 특히 금년부터 양사가 신제품으로서 드라이 맥주를 생산함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쟁력은 더욱 줄어들어 일부 호텔이나 관광업소 즉 특수한 소비층에서만 제한적으로 신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난 '87년 개방된 포도주와 '89년 7월 개방된 위스키의 경우는 주된 소비층이 고소득층과 특수층을 겨냥한 제품이므로 포도주는 3만~4만원짜리가 잘 팔리고 있으며 위스키는 6만~7만원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주세로서 국산 위스키의 경쟁력을 키워 준다고는 하나 가격에 좌우되는

소비층이 아니므로 국내 위스키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입개방에 따른 전환기를 맞고 있는 국내 주류산업은 기존의 맥주업계와 소주업계 등이 대중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입품과 대항하고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이어서 국내 주류업계가 공동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다. 수입주류의 경우는 판매량보다 금액면에서 전체 주류 판매액의 10~15%를 점유하고 있으며, 과자류의 경우에는 판매액 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전체 판매량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농가보호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구제심의 중에 있는 돼지고기 통조림의 경우 국내 수요량을 보면 지난 '86년에 2,942톤, '87년에 3,753톤, '88년에 4,579톤으로 연간 20%정도의 꾸준한 수요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비교해 보면 국내 육가공업체의 생산량이 '86년 2,264톤, '88년 4,062톤으로 매년 30%씩 증가하였으나 '89년에는 2,016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2%가 감소되어 생산위축과 가동율이 저하된데 반하여 수입이 개방된 '87년 하반기부터 566톤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88년에는 193% 증가한 1,758톤이 수입되어 수입개방 초기의 14%의 증가에 이어 '89년 9월말 현재 1,986톤이 수입되어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량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3,810톤에 이를 것이며 수입이 완전개방되는 '92년에는 국내 수요량의 70%에 해당하는 1만100톤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이 증가하는 주원인으로는 다른 수입품의 경우 국내산보다 값이 비싸고 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육가공 통조림의 경우 국산 원료육과 수입 원료육의 가격차이가 심하여 경쟁력에 있어서 수입품이

유리하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유통이 취약한 국내 식품산업에 손쉽게 유통될 수 있는 통조림 제품이라는 유리한 입장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육가공업체들은 원료육이 개방될 때까지라도 수입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1차 생산자인 농민들이 있는 한 가공업자만을 위한 대책만으로는 해결방법이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차라리 수입권을 생산업체에 허가하여 물량과 가격을 조정, 수입품 판매로 생기는 이익을 재활용하여 농가보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입물량을 내수제품 판매물량의 몇%로 제한을 두어 국내 육가공업이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업체들이 자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최소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하나 과연 농민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조림 식품중에 돈육통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수준이지만 매출액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품목의 하나이다.

또한 가공식품중에서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소오스와 페이스트형 이유식이 있는데, 소오스의 경우, 아직까지는 호텔이나 고급식당에서 주로 소비하고 있어 대중적인 시장을 상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업체들도 직접 수입과 판매에 나서고 있으나 식생활의 고급화와 다양화 추세에 따라 '92년에 이르면 국내에서도 대량생산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식의 경우에도 분말제품은 거의 국내생산으로 조달되고 있으나 기술상의 노하우가 있는 페이스트형 이유식은 전량 수입에 의존, 거버와 네슬레의 제품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제품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표 6. 소오스, 이유식등의 수입상사 현황

구 분	상 품 명	제 조 원	수 입 원
판 매 원			
서울하인즈	바닐라푸딩 외 2종	하인즈미국펜실바니아	일신양행
대봉산업	스파게티	CAMPIONI(이태리)	은성 산업
오리엔탈오버시스	감자 당면	자유중국	오리엔탈오버시스
연합식품공사	하우스연겨자 외6종	IKARI SAUCE(일본)	연합식품공사
암파코상사	포크 런천미트 외 2종	DAKE(덴마크)	암파코상사
매일유업	라이스츠크스 외1종	RALSTON PURINACo (미국)	매일 유업
영흥식품	녹두 당면	자유중국	영흥식품
동일상사	핫 소오스	B.F TRAPPEY, S SONE(스페인)	우전 교역
한양유통	스파게티	FICETTI(이태리)	한양유통
농 심	캠벨 포그린 외 3종 스위트 저클 맥코믹 후추 중합곡분 외 20종	CAMPELL SOUP Ic(미국) NALLEY(미국) MCCORMICK(미국) GERBER(미국)	농심 농심 농심 농심
새한유통	M&M	Mar Inc(미국)	새한유통
	바나나/쌀 외 16종	Beech Nut Nutrition Corp(미국)	새한유통

90년대 식품산업의 발전방향

판매원	구분	상품명	제조원	수입원
세계약품		라이스-그루일 외 9종	Galactina Sa Belp(스위스)	세계약품
오뚜기식품		타바스코 소오스 스파게티 베키드 빈스	Mc Ilenny(미국) Spigador(이태리) 에스피스(호주)	오뚜기 식품 오뚜기 식품 오뚜기 식품
삼아인터내셔널		키드니 빈스 핫 소오스 스테이크 소오스 마카로니 베키드 빈스 베이비 콘 옥수수 스위트 올리브	헌트(미국) Nabisco Brands Inc(미국) AI(미국) Pasta(이태리) 에스피스 로오즈(대만) 후래팩(미국) MARTA(스페인)	세진 서프라이 세진 서프라이 세진 서프라이 세진 서프라이 세진 서프라이 세진 서프라이 세진 서프라이
한국코타		RiceNoodle(순쌀국수)	KEDMYOO(태국)	유티코 식품사업부
두산산업		57 소오스 외 1종	HJ.HEINS	두산 산업
제일상사		스파게티 마카로니 콩통조림 오이절임	Pezzullo(이태리) Arrighi(이태리) HJ.HEINZ COG(호주) CURTICE BURN(미국)	정명 물산 정명 물산 효성 물산 고려 무역
청담유통		스파게티	PASTA MOCCAGATTA OVADA(이태리)	청담 유통
오리나인터내셔널		팩맨-선메이드건포도 외 3종 소오스(간장)	SUN MAID GROWER (미국) BAUMER FOODS INC (미국)	오리나인터내셔널 오리나인터내셔널

식품에 대한 수입개방이 국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수입상사·생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수입개방으로 생기는 갖가지 부작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겠으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암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물량이 문제이다. 특히 아직은 수입개방에서 제외된 유제품중에서 치즈의 경우 '88년에 국내 대기업의 참여와 설비투자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산 치즈의 물량이 전년도의 9백톤보다 백톤이 줄어든 8백톤 정도이기는 하나 전체 치즈 소비량 4천3백2십톤과 대비시켜 보면 약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금년과 같이 원유가 남아돌아 소비촉

진책이 심각한 형편임을 감안할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국내 유가공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버터의 경우도 형편은 비슷하여 '89년 10월말 현재 관공업소용으로 453톤을 수입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무려 350%나 증가하여 전체 버터재고량이 1천7백톤에 이르고 있어 원유의 적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주류의 경우, 수입 주류에 주세를 200% 적용하고 있어 전체 세금을 합하면 514%나 되는 세금을 받고 있는 위스키의 경우 7만원대로 가격이 비싼데 암시장의 가격은

2만원 정도이므로 국내 양주생산업체들은 수입개방으로 들어오는 완제품과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주와의 경쟁에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수입개방과 암시장의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양주제조업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4.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의 대책

우리나라의 수입관리업무는 상공부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으나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축수산물에 관한 것은 농수산부가 담당하고, 가공식품에 관한 것은 보건사회

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관한 안전성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보건사회부, 세관의 검역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검역소, 시·도보건환경연구소, 국립보건원 등이 있다.

그러나 각 주무부서들의 조직이나 인적구성원, 예산 등을 살펴 보면 수입식품에 관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국민보건행정에 대한 정부의 예산을 살펴 보면, '89년도 정부 총예산 19조원중에서 보사부의 예산은 4.55%에 불과하며, 보사부 예산중에서 식품위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22%에 지나지 않는다.

표 7.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건행정 예산

(단위 : 천원, 엔, %)

구분	국별 년도	우리나라			일본	
		87	88	89	87	88
정부예산(A)		16,059,629	17,464,429	19,228,376	54,101,019	
보건사회부(B)		508,610	663,841	875,669	10,026,528	
식품위생(C)		1,279	1,714	1,936	500,649	696,094
수입식품위생 대책비		-	-	-	124,716	218,665
B/A		3.27	3.80	4.55	18.53	
C/B		0.25	0.25	0.22	4.99	
D/C		-	-	-	24.91	31.41

자료 : 보건사회부 발행 「보건사회」1988

일본의 경우 전체예산 54조엔중 후생성의 예산이 10조엔으로서 전체예산의 18%를 할애하고 있는 점에서도 후생성예산중 식품위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5조엔으로서 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볼때 우리 정부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정도수준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수입식품의 경우 일본은 후생성내에 한개의 과에 해당하는 검역소업무 관리

실이라는 부서가 있어서 수입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체 위생예산의 31.8%인 21억8천7백만엔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와는 좋은 대조가 된다.

이러한 우리의 보건행정의 실정을 감안해 볼때 소득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실정으로는 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 하겠다. 따라

표 8.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실적

연도	구분	서류검사			관능검사			이화학검사			합 계		
		계	적합	부적	계	적합	부적	계	적합	부적	계	적합	부적
'85		4,144 (33.3)	4,143	1	5,505 (44.2)	5,502	3	2,803 (22.5)	2,774	29	12,452 (100%)	12,419	33
'86		8,712 (37.7)	8,712	-	6,179 (26.8)	6,170	9	8,185 (35.5)	8,162	23	23,076 (100%)	23,044	32
'87		9,187 (31.5)	9,187	-	10,788 (37.0)	10,772	17	9,214 (31.5)	9,185	29	29,189 (100%)	29,143	46
'88		15,078 (33.1)	15,077	1	28,276 (62.0)	28,262	14	2,254 (4.9)	2,192	62	45,608 (100%)	45,531	77

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보사부 위생국의 기능을 미국의 FDA처럼 보사부에서 별도의 기구로 확대, 개편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가지 예로서 최근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88년의 경우 관능검사가 62.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류심사, 이화학검사가 20%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4.9%로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관능검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88년도부터 같은 회사가 같은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과거의 검사결과만 가지고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는 생략하고 관능검사만을 하기 때문이다.

연도별 수입신고 건수에 대한 부적합율을 보면 지난 '85년 33건으로 전체의 0.27%, '87년에 0.5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때 수입식품의 위생검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며 또한 정부의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계획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무분별하게 수입하여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기업들의 각성과 일부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의식도 각성하여야 하겠다.

4. 수입식품의 문제점과 전망

첫째, 수입 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의 위생검사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검사체제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지난해 초에 벌어진 미국과 EC간의 쇠고기 분쟁을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항생제·항균제 및 성장호르몬 잔류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 식품관계법규에는 아직 방사능 오염에 대한 허용치 규정이 없으며 또한,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항생물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함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기업·소비자 모두의 각성이 필요할 때다.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채 무분별하게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각성하여야 하며 소비자 역시 수입식품에 대한 무조건적 선호의식도 버려야 한다.

둘째, 소비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제도는 그동안 정부의 성장 정책에 의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소비자를 위한 안전제도는 극히 부진한 형편이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안전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루 속히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홍수처럼 밀려 오는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내 식품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에 우선적으로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무역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수입개방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개방에 따른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산업의 보호 육성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세째, 현행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급속한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사 및 판정절차 기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무부와 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해야 할 것이다. 즉,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 대상에서 서서비스 및 지적소유권 분야도 포함시켜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조사와 판정을 객관적·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네째,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식품산업은 일부의 가공기술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가공기술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기초 연구에 충실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식량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 또한, 원료확보가 어려워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브랜드의 직접적인 수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입개방과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내 식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암시장이나 관광상품의 경우 면세를 받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관세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들이 국내 시장에 발 붙힐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내년이면 거의 대부분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므로 국내 식품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 개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최소한 수입개방으로 밀려 들어 오는 수입식품과 경쟁하고 암시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제품들과 경쟁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업체 스스로의 노력과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